

왕

고린도전서4:6-13

Brody Loewen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은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언덕의 왕”이라는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림] 한 아이가 “왕”이 되어 작은 언덕이나 놀이터 같은 높이 있는 곳에서 있고, 다른 아이들은 그 왕을 몰아내기 위해 올라가거나 뒤에서 몰래 접근하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왕을 밀어내고 정상에 오르면 그 아이가 새 왕이 되어 놀이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언덕의 왕” 게임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욕망은 몰래 우리 마음에 올라와 지배하려 하고, 다른 욕망은 밀치고, 노골적으로 주목받으려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계시도록 애쓰며 씨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4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4:14)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다음 주에 14절을 다룰 예정이구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쓴 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없는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는 능력과 유용성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면 혼돈이 다스린다는 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첫 세 구절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왕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폭로하기 위해 비꼬는 어조와 풍자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지,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3장에서 고린도의 분열된 지도자들과 아볼로와 자신 사이의 좋은 본보기를 대조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실제 주범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부드럽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의 시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믿음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붕괴나 쓴

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시정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을 동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왜곡된 현실관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었고, 자신과 생각이 같은 지도자를 따르며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는 교회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보여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들이 매우 영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영”과 “바람”이 같은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이 되려는 비뚤어진 노력 속에서 공허한 교만으로 가득 찼고, 이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임재 대신, 교만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 체험과 증거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스틴 하이츠 교회와 합병했는데, 각 캠퍼스를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와 다르게 투표한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다른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가정을 판단하지는 않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너희를 특별하게 만드느냐?”, “너희가 스스로 한 일이 무엇이냐?”, “왜 너희가 이것을 혼자 했다고 가장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불화를 일으켰고, 그들의 건축물은 붕괴 위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균열된 기초를 허물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너희가 무엇이 그리 특별하냐?” 혹은 “누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했는지 기억하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의 시작과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속량,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는 성령의 은사조차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했다면,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와 은사, 그리고 겉보기의 “자유”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부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31).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망과 확신, 은사와 기회의 근원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신자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걷는 신자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제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형제자매들이 그분께 달려가 공급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약속과 확신의 놀라운 목록을 나열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 가운데 앉는다고도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6-7). 그러나 이 약속들과 우리가 받은 높은 지위 안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속해 있지만, 그 왕국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린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마치 이미 “다가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었다면, 사도들 또한 함께 다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2등급의 신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졌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방탕하게 사는 데 사용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영감을 주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제한적인 삶의 방식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지만, 실상 왕이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견뎌기 때문에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인들은 핵심을 놓쳤습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죄의 굴레에 다시 얽매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나 감옥의 위협 없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곳을 떠나거나, 우리의 기독교적 환경을 떠날 때, 또는 교실, 직장, 가정 식탁과 같은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삶은 왕이신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의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망과 목표, 습관, 활동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제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시장에서, 또는 저의 집에서조차 저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자신을 앞서 나아가게 하는 데만 바쁘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브로디의 왕국을 세우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가족을 잃은 지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약속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타협했습니다. 저의 이미지와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신 저의 안락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으로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려고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색함이나 상황적 편안함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고통받는 이들을 용서와 치유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랑과 교만한 의의 끝에서, 바울은 그들을 사도들의 경험과 비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기 위해 왕권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9-1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인들이 “왕처럼” 살고 있는 동안, 사도들은 종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정복 시대에, 승리한 군대는 포로들을 사슬로 묶어 도시를 행진시켰고, 이는 종종 곧바로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는 포로들을 경기장으로 보내어 관중의 오락을 위해 희생시켰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이러한 포로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가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의 사역이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고린도인들과 대조하여 그들의 자만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쉬운 삶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영광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두 번째 부분, 즉 이미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반드시 견뎌야 하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심바가 자기가 왕이 될 날만을 기다리며 노래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무파사가 왕으로서 얼마나 큰 무게를 지고 있는지 몰랐고, 자신이 왕이 되는 여정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서구 사회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기초 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초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수용과 동의를 좋아합니다. 비록 그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가정에서도 신앙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법이나 문화, 사회적 영향력을 마주해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믿음과 기초의 풍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이집트의 억압에서 구원받을 때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매일 먹고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불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신 치유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다하셨을까요?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고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조차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비교는 이렇게 문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수치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혜롭고, 강하고, 존경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고린도인들은 명성, 안전, 안락함을 가져다줄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러한 것들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잠언 3장 5-6절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무시한 채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길은 잘못된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은 잠언과도 공명하며, 고린도인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고린도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본래 지혜롭거나 강하거나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사역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그들

은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으로 인해 마찰이나 박해를 겪는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이 약속의 두 번째 부분도 중요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잃는 대가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세상의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실을 겪거나 그분의 심판의 고통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왕처럼 사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13절 말씀입니다. “1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적 참고 13.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도다.”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기독교를 “판매” 하려 했다면, 그렇게 설득력 있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내용에는 매력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 중 일부는 고대 시대의 여행 전도자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다신교적인 문화와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사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겪은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문화와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증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잠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후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기록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

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1-24).

고린도전서와 베드로전서, 그리고 사도들과 주 예수님의 언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주목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2-5).

베드로와 이사야는 모두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나니”라고 말합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승인은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더 나은 길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더 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풍성한 보상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속적인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22; 마태복음 21:41; 사도행전 4:11). 예수님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기초입니다. 희생, 고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살아계시며, 우리가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신실하신 주를 따른다면, 그분이 겪으셨던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18-2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구세주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은 개인적이면서도 공적인 일입니다. 때로는 거의 아무런 대가도 없을 수 있지만, 때로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며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그들보다 낮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서로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리더로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은혜롭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예를 보이고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그들을 위해 자신을 쏟아붓는 도구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추구할 뿐 아니라, 세상과 천사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힘씁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 앞에서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순간들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까? 평화롭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그분의 평화를 반영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결과 도시의 어둠에 맞서 예수님을 위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믿음 밖의 사람으로부터의 조롱을 감수하더라도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차이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제 삶의 왕좌에 앉아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좋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면 제 삶에는 혼돈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분의 평화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없는 헛된 약속을 좇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삶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위해 왕권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우리의 분열은 사라집니다. 겸손하신 왕을 존경할 때 우리의 교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뒤집어진 왕국의 원칙대로 살 때 우리의 패배는 승리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합당한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다른 이들도 우리의 증거를 통해 생명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합시다. 그런 후에 찬송으로 응답합시다.

